

화단 및 분화용 삼지구엽초 재배기술

Cultivation and Using for Garden
and Potted Plant of *Epimedium*
koreanum Native to Korea.

L A N D S C A P I N
G



송 정 섭 이학박사

(031-290-6140, songjs@rda.go.kr,
www.wildflower114.com)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화훼과장
(National Horticultural Research
Institute, RDA)



▲ 금낭화를 마주보며 산괴불주머니와 군락을 이루고 있는 삼지구엽초의 잎 모습

3개의 가지가 다시 세 갈래로 나뉘져 전체적으로 보면 가지 3개에 9개의 잎이 달려 삼지구엽초(三枝九葉草)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긴 하트모양의 잎도 아름답지만 배가 정박할 때 내리는 닦처럼 생긴 꽃이 특이하고 귀하게 생겼다. 예로부터 강장, 강정 등의 약용 식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정력에 좋다는 소문과 함께 자생지가 수난을 겪고 있는 식물이다.

1. 생태적 특성

삼지구엽초는 매자나무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써 꽃이 5월에 황백이나 황색으로 핀다. 키는 20~30cm 정도로 자라며 뿌리는 줄기뿌리 형태이며 잔뿌리가 많다. 반음지성 식물로 내습성이 강하고 추위에도 아주 강하다. 여름 고온에는 다소 약하다. 씨앗은 한 여름에 익으며 잎 아래에 가느다랗게 달린다. 중국명 또는 한약명으로 음양곽(淫羊藿)이라 부른다. 외국에서는 화훼원예종으로 개량된 것들이 많다.





▲ 꽃과 잎의 배열 모습



▲ 도입종 삼지구엽초의 분홍색 꽃 모양

2. 용 도

삼지구엽초는 꽃 모양이 특이하고 잎도 좋기 때문에 정원이나 공원 및 분화용으로 심어 감상해도 손색이 없다. 워낙 약효가 있다고 알려져 노는 땅이 있으면 약용작물로 심어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원에 심을 때는 반 그늘지면서 물 공급이 잘 되는 곳에 심는 것이 좋다. 햇볕이 너무 강하거나 건조하면 생장이 더디고 여름에는 잎이 녹아버리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3. 재배기술

삼지구엽초는 전국 어디서든 월동하며 생육적온은 16~30℃이다. 종자에는 당분이 있는 밀선(蜜線)이 있어서 개미와 같은 곤충들에 의해 잘 전파된다. 이 때문에 야생에서는 깽깽이 풀처럼 개미의 활동범위를 따라 군락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가. 번 식

1) 종자번식

삼지구엽초는 4~5월에 꽃이 피어 6월에 결실하게 되는데, 개화 및 결실률이 매우 낮다. 또한 종자



▲ 꽃모양이 특이한데다 군락을 이루고 있으니 주변과 잘 어울린다



▲ 삼지구엽초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모습



▲ 자세히 들여다보면 꽃 모양이 특이하다

가 앞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데다 충분히 익으면 꼬투리가 쉽게 터져서 씨앗 받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씨앗이 약간 덜 익었을 때 받아 후숙시키는 방법을 쓴다. 씨앗은 습윤한 곳에 뿌려 반그늘지게 해주거나 노천매장을 하면 후숙과 휴면과정을 거쳐 다음해 봄에 싹이 나온다.

2) 뿌리삼목

삼지구엽초는 종자채취가 어려워 실생번식 보다

는 뿌리 삼목에 의한 번식을 많이 한다. 뿌리삼은 삼수의 길이에 따라 출아율 및 초기생육이 크게 다르다. 즉 뿌리줄기가 길수록 삼목 후 생육이 좋은데, 대량증식을 고려하더라도 5cm는 되어야 정상적인 생육을 하게 된다. 뿌리삼목용 상토는 펄라이트(5)+버미큘라이트(5)가 적합하며 시기는 가을에는 10월 하순, 봄에는 땅이 풀리면 바로 하는 것이 좋다.



▲ 삼지구엽초종 도입된 개량종으로 나무의 하층식재용으로 잘 어울린다

나.재배관리

삼지구엽초는 물이 잘 빠지고 비옥한 곳에 심는 것이 좋다. 햇볕은 반그늘이 지도록 해 주고 약간 서늘한 온도조건이 좋다. 특히 그늘, 통풍 등을 활용하여 여름철 고온을 잘 넘겨야 한다. 강원도농업기술원 연구결과(표 1, 2), 차광은 봄에 일찍 하는 것이 개화율도 높이고 꽃 품질도 좋게 한다.

분화용으로 기를 때 화분크기는 25cm가 적합하며 크기가 클수록 뿌리의 생육이 좋으며 줄기와 잎도 잘 자란다.

(표 1) 차광시기별 초장 및 개화특성(강원도농업기술원, 1998)

차광시기	초장 (cm)	개화율 (%)	개화기 (월.일)	개화기간 (일)	화수 (개/경)	화폭 (cm)	화경 (cm)
4월상순	40.0	63.3	4.20	7.2	4.2	4.3	7.3
중순	31.6	43.3	4.19	7.0	3.9	3.6	5.3
하순	28.9	36.7	4.18	6.9	3.8	3.7	6.4
5월상순	28.0	50.0	4.17	6.3	3.5	3.4	4.5

(표 2) 화분크기별 초장 및 개화특성 (강원도농업기술원, 1998)

화분크기 (직경-cm)	초장 (cm)	개화기간 (일)	화수 (개/경)	화폭 (cm)
15(1분)	27	9.0	2.3	3.5
20(2분)	36	10.2	2.6	3.8
25(3분)	38	11.4	3.5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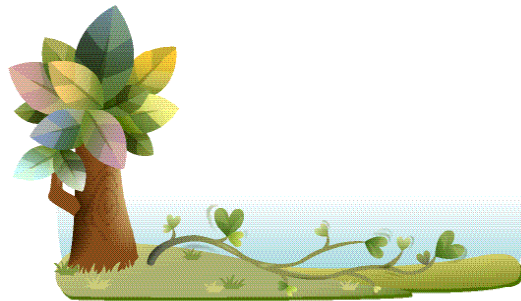
다. 꽃피는 시기 조절

삼지구엽초는 다년생 초본으로 겨울철에 휴면에 들어가 해빙되기 전까지 생육이 정지한다. 휴면에 필요한 저온은 5℃ 이하의 저온에서 45일 이상으로써 이 조건을 맞춰 잘 조절하면 연중 꽃을 피울 수 있게 된다.

라. 시비 및 동계관리

삼지구엽초 자생지를 보면 부엽토가 수북이 쌓인 곳이다. 따라서 생육을 좋게 하려면 퇴비를 충분히 넣어 비옥하게 관리해야 한다. 우분 발효퇴비를 기준으로 2,000kg/10a을 넣고 잘 섞어준다. 밑거름으로 인산 함량이 높은 복합비료를 약간 섞어 주는 것이 좋다. 정원에서 겨울에 그대로 두어도 추워서 동사하는 경우는 거의 생기지 않지만 겨울 동안에 짚으로 덮어주게 되면 봄에 싹이 나오는 비율도 높고 초기생육도 월등히 좋아진다.

병해는 특별히 없으나 충해는 묘가 어렸을 때 잎 내부를 뚫고 들어가 피해를 주는 굴나방 피해가 발생한다. 굴나방의 유충은 유백색으로 길이 8~12mm 정도로써 자생지보다 포장에서 먼저 발생하며 2번에 걸쳐 발생성기를 보인다. 너무 붙여 심으면 잎이 서로 접촉하여 유충들이 쉽게 이동하여 피해가 확산되기도 한다. 따라서 4-5월 어린 잎이 막 전개될 때 잘 관찰하고 피해 흔적이 보이면 바로 살충제를 뿌려주는 것이 좋다. 🌳



마. 병해충 방제